

사설

스님들의 민족문화 수호

불교계가 민족문화수호에 적극 나선다. 조계종은 이번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민족문화수호와 전법'을 위한 조계종지도자회의'를 열고 그 의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는 문화유산의 해를 보내면서 시의 적절한 결사이며,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의 문화정책을 냉철히 평가하고 잘못된 문제점을 들추어 내며, 민족문화수호와 전법을 위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불교권 안에서는 수행과 전법을 통해 요괴중생의 보살행을 실천할 것과 21세기 민족문화를 선도하는데 불교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나라경제의 총체적 파탄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좌절감속에 빠져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일조를 받기 위해 당분간 경제실태의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5천년동안 민족문화유산을 지켜온 우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물론 그 직접적인 원인은 잘못된 국가경영과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민족의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서구의 물질만능의 문명을 너무 신봉하는데에서 온 점도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은 그동안 너무 서양문화우대와 함께 개발우선주의에 바탕을 두고 시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민족문화가 말살되고 그 전통성이 상실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사회전반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정신문화보다는 물질만을 중시하는 의식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과 의식을 바로잡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불교계가 수행과 전법의 원력을 모아 나라와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여 정치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폐쇄된 민족정신과 민족문화를 복원하고 중흥시키는 일이야말로 불교가 민족종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길이다. 삼보정재이고 민족의 성보인 불교문화재의 올바른 보존과 전승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조계종지도자회의는 매우 의미가 깊으며 이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과제와 활동을 더욱 중요시한다.

첫째, 실천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많이 가져왔으나 선언에 그치고 실천이 미약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22일에는 조계종에서 전국 분당사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갖고 사회환경의 보호와 불교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적극 나섰다. 또한 지난 연초에는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결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선언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선언과 다짐들이 우리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놓고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조직체계의 정비와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물질·인적 기반의 조성이 시급하다. 각종 민족문화유산을 지키는 사업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의 내년도 문화관련 예산은 당초 주관부서가 요구한 액수의 30%에 그치고 말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성보의 현황조사나 불교관련 지정문화재 실태조사 등에 관한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해야 할 판이다.

그밖에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범불교적인 기구의 확충, 불교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공연단의 활성화와 공연장의 건설, 국제불교문화교류의 확대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민족문화수호에 적극 나선다. 조계종은 이번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민족문화수호와 전법'을 위한 조계종지도자회의'를 열고 그 의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는 문화유산의 해를 보내면서 시의 적절한 결사이며,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의 문화정책을 냉철히 평가하고 잘못된 문제점을 들추어 내며, 민족문화수호와 전법을 위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불교권 안에서는 수행과 전법을 통해 요괴중생의 보살행을 실천할 것과 21세기 민족문화를 선도하는데 불교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나라경제의 총체적 파탄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좌절감속에 빠져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일조를 받기 위해 당분간 경제실태의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5천년동안 민족문화유산을 지켜온 우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물론 그 직접적인 원인은 잘못된 국가경영과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민족의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서구의 물질만능의 문명을 너무 신봉하는데에서 온 점도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은 그동안 너무 서양문화우대와 함께 개발우선주의에 바탕을 두고 시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민족문화가 말살되고 그 전통성이 상실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사회전반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정신문화보다는 물질만을 중시하는 의식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과 의식을 바로잡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불교계가 수행과 전법의 원력을 모아 나라와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여 정치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폐쇄된 민족정신과 민족문화를 복원하고 중흥시키는 일이야말로 불교가 민족종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길이다. 삼보정재이고 민족의 성보인 불교문화재의 올바른 보존과 전승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조계종지도자회의는 매우 의미가 깊으며 이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과제와 활동을 더욱 중요시한다.

첫째, 실천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많이 가져왔으나 선언에 그치고 실천이 미약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22일에는 조계종에서 전국 분당사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갖고 사회환경의 보호와 불교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적극 나섰다. 또한 지난 연초에는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결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선언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선언과 다짐들이 우리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놓고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조직체계의 정비와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물질·인적 기반의 조성이 시급하다. 각종 민족문화유산을 지키는 사업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의 내년도 문화관련 예산은 당초 주관부서가 요구한 액수의 30%에 그치고 말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성보의 현황조사나 불교관련 지정문화재 실태조사 등에 관한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해야 할 판이다.

그밖에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범불교적인 기구의 확충, 불교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공연단의 활성화와 공연장의 건설, 국제불교문화교류의 확대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갑사경내지 5천평 '강제수용'

건교부 야영장 조성 확정...교계 "법적대응"

갑사경내지 5천여평이 야영장으로 강제수용키로 결정. 조계종 총무원, 6교구본사 마곡사를 비롯 교계의 법적대응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교통부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1월 2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갑사)이 추진해온 갑사 경내지내 야영장 조성공사를 허가했다.

3일자로 발송된 중앙토지수용위 갑사토지 수용결정서에 따르면 갑사토지가 수용됐음을 통보

하고 수용시기는 12월 30일로 명시했다. 이에따라 12월 30일 까지 보상비 15억원이 공고되면 서 토지소유가 집단시설지구내 국유지로 변경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대해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와 갑사는 10월 10일자로 발표된 전통신찰보존법 개정안에 의거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분석하고 중앙토지수용위 재결위에 이의를 신청한 뒤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고등법

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갑사가 속한 6교구 본사 마곡사는 이번조치와 관련 "본·말사가 연합하여 물리적으로라도 막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담당자인 김경출씨는 "계룡산국립공원 갑사집단지구내 건물이 최종 확정된 87년 3월 조계종총무원등 뒤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고등법

원내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갑사가 속한 6교구 본사 마곡사는 이번조치와 관련 "본·말사가 연합하여 물리적으로라도 막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담당자인 김경출씨는 "계룡산국립공원 갑사집단지구내 건물이 최종 확정된 87년 3월 조계종총무원등 뒤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고등법

(김원우 기자)



신행단체·동국대 경제살리기 '앞장'

실천지침 결의...절약 가두캠페인 전개

불교계의 경제살리기운동이 교계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2일 예산의 10% 인축집행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조계사 청년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동국대 등이 절약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중앙승가대학은 학인스님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침을 마련, 청정승가의 절약정신을 발휘하자고 촉구했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3일 교내 예술극장에서 실천결의대회를 갖고 △금융일 캠퍼스 차 없는 날 △절전·절수 및 생활장터 이용 등 5개항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동국대는 입시경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집행을 10%감축키로 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설조)은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했다. 범국민 운동본부에 1일 서울 명동 상업은행 앞에서 발족식을 갖고 경제대란에 대한 현명한 국민적 대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가졌다. 조계사청년회(회장 이종찬)는 11월29일 조계사 법당에서 정기법회를 갖고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문 및 6대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이에앞서 대구광역시 불교신도회(회장 최동원)는 11월 21일 회장단회의에서 △과소비중조근원 △해의여행차 △외국제품 구매근절 △소액달러 환전 등 4개항의 경제살리기 실천지침을 정하고 각종 법회나 강연회에서 이를 홍보하기로 했다. 신도회는 결의사항을 10일 열리

는 임원회의에 상정해 신도회 사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과학연구소(소장 류승우)는 4일 △오후불식을 통해 청정승가구현 △국산학용품 사용 △외국용류(커피, 콜라) 마시지 않기 등 5개항의 학인실천지침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21면)

◇동국대학교는 3일 교수회, 노조, 총학생회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경제로 나라경제 살리자'를 슬로건으로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창덕궁·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3일 창덕궁과 수원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창덕궁은 동아시아 궁궐건축 및 정원디자인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형식의 탁월함을, 수원화성은 근대 동서양의 과학을 통합 발전시킨 건축물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지난 9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석굴암과 불국사, 팔만대장경·장경관전, 종묘와 함께 5건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역사적·미적·과학적 관점에서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先 이사장 선임 後 사장 추천"

전흥원 서든각이사장 'BBS인사' 입장 표명

대한불교전흥원 서든각이사장(불교방송 사장직대·사진)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사장직대 영당님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불교방송 사장직대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뜻과 함께 매년 불교방송에 지원해 왔던 5억원도 불교방송 측에서 임대료 수도세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재지원치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서이사장은 "새 이사장이 선임된 후 사장 추천 후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추천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선 사장 선임"을 주장하는 영당님 의견에 반해 "선 이사장 선임 후 사장 추천"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표명했다.

현재 불교방송 경영상태는 공금형량사건과 관련해 입은 23억



2천만원의 손실 외에도 10월말까지 적자 결손액 15억3천만원, 누적된 임대료 기자재 미지급금 16억원 등 31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서든각 이사장은 "하루라도 빨리 이사장·사장이 선임돼 직대체제가 해체돼야 늘어나는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며 "사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지연 기자)

임원선임등 논의할듯 12일 불교방송 이사회

불교방송 이사장 영당님은 2일 조계종 파견이사 간담회를 갖고 제20차 재단이사회를 12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하

도후 영당님은 12일 이사회를 개최 △98년 재단·방송 예산안 및 승인 △조계종 이사 사퇴 △이사장 선임 △이사장 선임 △이사 및 감사 선임 △지부국 설립 승인 △정주지국 분사무소 등기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조계종 전법시범도량 6곳 선정

인천-종단직영 포교당, 목포-불교대 '개설 추진'

조계종 전법시범도량으로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와 경기화성 신흥사(주지 성일), 경북상주 남장사(주지 성웅), 경남거창포교당(주지 주연), 광주향림사(주지 천운), 전북불교회관(대표 강건기) 등 6곳이 선정됐다. 조계종 전법의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원주)는 2일 총무원

4층회의실에서 전법도량 지정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전법의회 조직위원회는 6개 사찰은 지역을 안배해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거점사찰과 시범사찰을 다양하고 폭넓게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법시범도량으로 선정된 사찰에는 지정서와 전법도량 현

관, 지원금이 전달되며 전법도량 지정규정에 의거해 법사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전법의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거점지역에는 신도교육 위주의 종단직영 포교당 개설(인천), 목포지역의 경우 관할 교구본사인 대둔사와 이 지역 조계종 사찰이 함께 불교교양대학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불교가 주목시점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문화제는 신경 안쓰고...

알숨 Alsom은 수맥·전자파 차단과 단열을 동시에 해결!

알숨 1000

- 수맥파의 가공할 위험 차단효과!
- 전자유해파의 피해 차단효과!
- 뛰어난 열전도·반사율로 경이적인 단열효과!

용도 : 신축주택, 아파트의 난방파이프 바닥 등 기존주택의 장판면이나 침대

알숨 500

- 수맥과 전자파를 동시에 차단하고 이동이 간편하며 실내에서 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부드러운 재질로 만든 매트형 제품

용도 : 전기장판, 전기담요 상부 일반우, 침대(병원침상 등)

본 제품의 특성

수맥파 차단 및 방습, 방수, 방음효과 : 순도 99.6% 이상 고순도 알루미늄과 아스판트왁스등 복합소재 사용

단 열 : 알루미늄의 뛰어난 열전도·반사율로 인한 단열

독성 차단 : 시멘트 몰타르등의 유해성분 차단

편리한 시공 : 출몰을 인체하여 철회가 편리하고 재질이 유연하여 사용이 간편

파격적인 가격 : 알루미늄계열 사용으로 가격저렴

제조원 **삼민산업주식회사**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1-8 (시화공단 4나-109호)

TEL : (0345)498-5533 (대)

FAX : (0345)498-8998

알숨 100 : 단열과 방습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으로 모든 건축물, 옥사, 창고등의 바닥이나 벽체 및 천정에 사용

전국대리점모집